



New ETF Insight

Vol. 13

김수정

- 채권 ETF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 채권, ETF로 투자했을 때 장점과 단점
- 지금은 어떤 채권 ETF를 담아야할까?

Contents

Summary	2
채권 투자가 인기라는데?	3
채권투자, ETF로 했을 때의 장점	5
어떤 채권 ETF들이 있을까	7
그럼 지금은 어떤 채권 ETF 전략을 가져가야 하나요?	9

Summary

최근 ETF 시장의 화두는 채권이다.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단위로 채권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완화될 기미가 안보인 탓이 큰데, 이번 기회에 채권 ETF는 무엇인지, 채권 ETF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시장 상황에서 어떤 채권 ETF를 활용해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우선 채권 ETF는 개별 채권 거래보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유동성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개별 채권은 채권의 종류마다 이자수익 지급 시기가 다른데, 복잡한 분석 대신 해당 채권 ETF의 분배금 지급 시기와 과거 데이터를 확인하면 대략적인 이자수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채권형 ETF의 월분배 상품이 늘어나는 추세라 꾸준한 현금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ETF는 만기가 없어 개별 채권처럼 원금이 전액 상환된다는 채권의 특징이 사라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지만 만기 채권 ETF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해결될 전망이다.

채권 ETF는 담고 있는 채권의 만기와 발행 주체에 따라 나뉘는데, 예를 들어 공공 기관 발행, 3년 미만 만기를 가진 채권은 단기 국공채,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5년 미만 채권은 단기 회사채로 분류된다. 그 외 CD금리 KOFRO도 채권 ETF로 분류된다. 채권 혼합형 ETF의 경우 특정 지수와 특정 채권을 동시에 보유할 수도 있고, 글로벌 멀티에셋 TIF와 같이 다양한 주식과 채권 자산군을 혼합한 ETF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 파월은 역사적인 볼커 전 의장의 문구를 활용하면서 피벗은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내년 상반기 내내 긴축 사이클이 이어질 것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투자 전략을 장기적으로 한가지만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등장한 키워드가 바벨 전략이다. 채권ETF 투자에 적용한다면 단기 고금리 채권ETF 투자를 통해 이자수익과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금리 영향으로 가격이 떨어진 중장기채 ETF를 향후 시세 차익 실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넓은 개념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바벨 전략을 추구한다면 장기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노린다면 꼭 채권이 아닌 주식, 그 중에서 우량주,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에 투자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New ETF Insight

채권 투자가 인기라는데?

최근 ETF 시장의 화두는 채권이다. 비단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단위로 채권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완화될 기미가 안보인 탓이 큰데, 이번 기회에 채권 ETF는 무엇인지, 채권 ETF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시장 상황에서 어떤 채권 ETF를 활용해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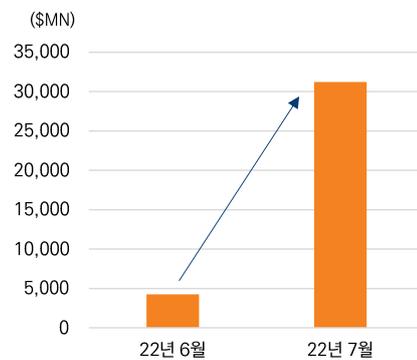
ETFGI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이례적으로 채권 ETF로의 유입이 많았다. 전월비 채권 ETF 순유입 규모는 9배 가량 늘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주식 대비 채권 ETF로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된 것이다. 올해 7월에는 주식 ETF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채권 ETF를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는 의미다.

7월 자산군별 글로벌 ETF 자금 흐름



자료 : ETFGI

2022년 여름 채권 ETF 순유입 규모



자료 : ETFGI

국내도 비슷한 상황인데, 올해 국내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2조 7452억원으로 작년 8월 대비 393%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규모는 더 확대되는 중이다. 올해 총 상반기 개인의 매수 채권 규모는 5조 398억원이었던 반면 7~8월 합산 금액은 이미 5조 6천억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안전 자산에 대한 필요성, 낮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에 대한 수요 등이 채권

순매수를 부추겼다. 연준이 입장 선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대표적인 안정적인 인컴형 자산이라는 점에서 채권의 매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순수 채권 매수 규모도 늘어나고 채권 ETF의 매수 규모도 늘어난 셈이다.

채권ETF 투자 전 기본적인 용어부터 알아야지?

우선 주식에서 PER, PBR 등 개념을 알고 투자 해야 하는 것처럼 채권을 투자 하기 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들을 알아보자.

1) YTM (Yield to maturity) : 만기 수익률을 뜻한다. 보유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채권 수익률을 뜻하며 실제로 시장에서 인용하거나 공시하는 대부분의 채권 수익률은 암묵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되는 만기 수익률이다.

2) 채권 이자수익률과 표면금리 : 보통 채권의 수익률은 투자자가 만기일까지 채권을 보유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총 수익률을 현재의 투자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며, 여기에 투자원금이란 채권(매입) 가격과도 같은 의미다. 채권은 가격이 아닌 수익률로 거래되는 게 보통인데, 채권은 지급이자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되고 나면 시장에서 매매되면서 가격이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국채가 최초 발행했을 때 연 10%의 표면 금리를 준다고 가정해보자. 이 발행된 국채를 A가 10만원에 매입했고 매년 1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그 이후 한국 경제가 좋아져 수요가 높아졌다면 국채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서 B는 국채를 15만원에 해당 국채를 매수했다면 B는 만원을 받지만 해당 채권의 금리(이자수익률)는 6.67%(1만원 / 15만원)이 된다. 표면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장에서 여러가지 요소로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해당 채권의 금리가 변한 것이다.

채권가격은 그래서 채권의 이자수익률과 항상 역수 관계다.

3) 기준금리 인상과 채권의 관계: 국가 정책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기대감이 일렁이면 채권의 일드를 높이지게 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출처: 피델리티 자산운용) 예를 들어 중기 국채인 3년 만기, 3% 쿠폰을

지급하는 국채를 천만원 매수했다고 하자. 액면가에 채권을 투자했다면 매년 30만원의 연이자를 받게 되며 만기시에는 1,000만원의 액면가를 돌려받게 된다. 근데 앞으로 3개월 후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4%로 인상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4% 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 1,000만원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살 것이다. 그러면 이전에 투자했던 채권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2%로 낮춘다면 이전에 발행한 3% 금리 지급 채권이 더 매력적이다. 그러면 3% 금리의 채권이 프리미엄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이다.

4) 듀레이션: 간단하게 말하면 투자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말한다. 채권에 돈을 투자한다면 투자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당연히 투자자금의 회수는 길어진다. 채권의 회수 기간은 표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만기까지 기다려야만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자가 지급된다면, 그 만큼 투자자금의 회수 기간은 짧아지기 마련이다. 물론 이 경우 지급되는 이자가 높을수록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 듀레이션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서 채권 가격의 이자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 사전

채권과 ETF의 결합 장점과 단점

위에서 설명한 특징들을 보면 채권과 ETF가 결합을 하면 채권 ETF 만의 몇가지 특성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식과 채권은 자산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ETF로 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것은 채권은 만기가 있는데 주식은 만기가 없다. 그런데 ETF가 계속 거래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외에도 주식이 아닌 채권과 ETF가 결합하면 알고 있어야할 부분들을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하자면, 대부분의 채권 ETF는 계속해서 ETF가 추종하는 지수에 명시된 만기 채권을 롤오버를 통해 이어나간다.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권으로 롤 오버해서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채권 ETF는 주요 증권 거래소의 주식 ETF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하루 종일 거래되므로 개별 채권 투자에 부족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1) 포트폴리오 다각화: 개별 채권을 매수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채권 지수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채권을 소유할 수 있다

2) 유동성 : 채권은 장내, 장외 채권이 있다. 물론 장내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장외 채권 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개별 채권이 주식만큼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HTS, MTS를 통해 거래 할 경우 유동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유동성은 국고채 > 단기사채 > 공사채, 회사채, 특수채 > 신종자본증권 순서로 높는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채의 경우 유동성 프리미엄이 평균적으로 30bp 수준(AA급 회사채)이다. 유동성이 높은 국채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5bp인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프리미엄과 거래가 가능한 채권 종류가 증권사 마다 상이한 점도 채권 직접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데, ETF의 경우 LP(유동성 공급자)가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출하기 때문에 개장 시간 내내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채권의 만기가 끝나기 전 팔고 싶다면 손쉽게 팔 수도 있다.

3) 인컴 수익 지급 방식: 채권은 종류에 따라 이지지급방식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 투자를 통해 꾸준한 인컴 수익을 바라다면 투자하려고 하는 개별 채권이 이표채, 단리채, 복리채, 할인채 중 어떤 채권이며 이자 지급 시기는 어떤지 채권 마다 분석해야한다. 예를 들어 국고채, 산금채(산업금융채권), 한전채(한국전력채권), 대부분 회사채가 이표채로 발행되는 데, 만기가 3년 이하인 국고채는 3개월 단위로, 만기가 5년 이상인 국고채는 반기 단위로 이자가 지급된다. 개별 회사채는 회사채 마다 다르다. 반면 채권 ETF에 투자한다면 분기마다 혹은 월 마다 분배금 형식으로 채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복잡한 분석 대신 해당 채권 ETF의 분배금 지급 시기만 확인하면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채권형 ETF의 월분배 상품이 늘어나는 추세라 꾸준한 현금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만기가 없어 개별 채권처럼 원금이 전액 상환된다는 채권의 특징이 사라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지만 만기 채권 ETF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해결된 셈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만기가 없는 채권 ETF는 금리가 하락한다고 예상할 때 ETF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며 이와 동반되는 인컴 수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반면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는 금리 변동에 가격민감도는 떨어지지만 만기까지 들고 갔을 때 수익을 확정할 수 있는 ETF라고 표현했다. 만기까지 보유시 원금과 확정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그래서 만기가 없는 채권 ETF는 가격 변동분과 꾸준한 분배금으로 인컴 수익을, 만기가 있는 채권 ETF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경우 확정적인 이자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다양한 채권 ETF가 ‘파킹 통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연평균 2.73%, 국고채는 연 평균 3.5%, 회사채 ETF들의 연평균 금리는 4.5% 다. 은행 정기 예금보다 금리가 높으니 리스크가 있더라도 투자 후 받을 수 있는 이자수익등을 고려해 파킹 통장으로 채권 ETF를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왜 떠오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떤 채권 ETF들이 있을까

그렇다면 채권 ETF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채권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지만 채권 ETF의 종류는 채권의 종류만큼 다양하지는 않다. 보통 모아서 한 개의 인덱스를 구성해 추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채권 ETF는 미국 내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투자하는 ETF로 Total, Aggregate라는 이름을 가진 상품들이다. 미국 국채, 회사채, MBS, ABS, CMBS 등을 모두 포함한 인덱스를 추종한다.

그 외 채권 ETF는 만기와 투자하는 채권에 따라 나뉜다. 예를 들어 3년 미만 만기를 가진 국공채는 단기로 분류되고 회사채는 5년 미만이 단기로 분류된다. 국내에선 단기통안채와 같은 채권이 단기 국공채 ETF라고 볼 수 있다. 3~7년 만기를 가진 국공채는 중기로 분류된다. 회사채의 경우 만기가 5~10년이면 중기라고 본다. 회사채는 투자등급, 투기등급(하이일드)로 또 나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투자등급은 투기등급대비 금리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CD금리 KOFR도 채권 ETF로 분류된다. CD는 예금통장을 채권과 같이 할인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KOFR은 국채 및 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금리를 사용하여 산출한 한국무위험지표금리라고 보면 된다. CD는 만기가 1년미만이고 3개월 짜리인 91일물이 가장 대표적이고 KOFR은 익일물 RP 금리를 사용하는 만큼 듀레이션이 1일인 하루짜리 상품으로 모두 초단기 채권형 ETF라고 보면 된다.

채권 혼합형 ETF의 경우 주식 비중을 40% 미만으로 유지하며 투자하는 혼합형 방식으로 운용된다. 특정 지수와 특정 만기 채권을 혼합할 수도 있고, 글로벌 멀티에셋 TIF와 같이 다양한 주식과 채권 자산군을 혼합한 ETF도 있다.

채권 ETF 종류

		단기	중기	장기
국내	국공채 ETF	3년 미만 국공채 ex)단기통안채	3~7년 국공채 ex)중장기 국채	10년 이상 국채 Ex) 국채 10년물
	회사채 ETF	1년~5년 회사채 ex)투자등급회사채	5~10년 회사채	10년 이상 회사채
	기타/채권혼합 ETF	그 외 금리 투자 상품 ex) CD 금리, KOFR	채권 & 주식 투자 ex)나스닥채권혼합	
해외	국공채 ETF	해외 통화 표시 채권	3~7년 해외 통화표시 채권	10년 이상 해외 통화 표시 채권 ex)미국 10년물
	회사채 ETF	1~5년 미만 회사채 ex)단기하이일드	5~10년 회사채 ex)중기회사채	10년 이상 회사채 ex)장기회사채
	기타/채권혼합 ETF	그 외 금리/대출/채권 투자 상품 ex) 시니어론, MBS 등	채권 & 주식 투자 ex)글로벌멀티에셋 TIF	

자료 : 미래에셋자산운용

그럼 지금은 어떤 채권 ETF 전략을 가져가야 하나요?

채권 ETF 투자를 고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와 투자의 목적이다. 채권 ETF는 대부분 인컴형으로 분배금 지급의 빈도가 중요하다면 그러한 부분도 함께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달러표시 채권의 경우 환율까지 고려한다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

우선 간단하게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단기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기채 전략을 펼치는 것이 가장 교과서적인 생각이다. 물론 금리 이외 수많은 요소들이 채권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가장 많이 회자 되는 부분이 금리인 만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당연히 돈을 회수할 때 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니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단기채는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파월은 역사적인 볼커 전 의장의 문구를 활용하면서 피벗은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내년 상반기 내내 긴축 사이클이 이어질까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매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시장이 흔들리고 연준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을 보면 투자 전략을 장기적으로 한가지만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등장한 키워드가 바벨 전략인데, 극단의 안정성과 장기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얻는 전략이다.

앞으로는 바벨 전략을 추구해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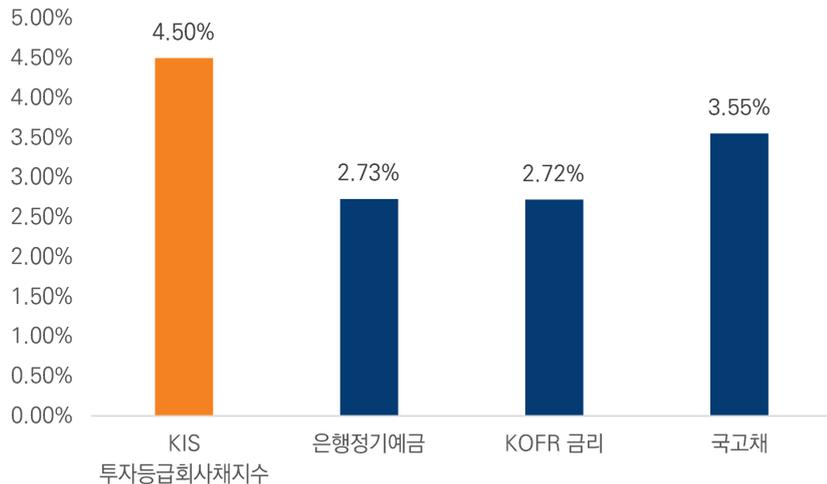
자료 : 미래에셋자산운용 , Shutterstock

단기 고금리 채권 투자를 통해 이자수익과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금리 영향으로 가격이 떨어진 장기채를 향후 시세 차익 실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노린다면 꼭 채권이 아닌 주식 중에서 우량주,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에 투자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는 초단기채로 분류되는 CD 금리투자 상품, 단기채로 분류되는 단기통안채 ETF를 활용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더 높은 이자수익까지 노린다면 단기 투자등급 회사채 ETF를 활용할 수 있다. 채권의 일드는 이자와 크레딧 스프레드로 구분되어 있는데, 크레딧 스프레드는 개별적인 채권 발행인의 신용 리스크에 따라서 달라지고 금리(이자)는 전반적인 경제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특정 통화로 표시된 모든 채권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의미한다. 회사채의 경우 크레딧 스프레드가 국채보다 높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자수익이 단기 국채보다 높다.

이자수익 추구 상품 연평균 금리 비교



자료 : 한국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 2022.06.30
 KIS투자등급회사채지수 만기는 평균적으로 3년 수준, 국고채 3년 만기

바벨의 또 다른 무게추에선 금리인상으로 저가매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장기국채 ETF를 담을 수 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해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이라도 변경된다면 가격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 외에도 위험을 추구하고 싶다면 주식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되는 우량주 성격을 가진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인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미국 대형 테크 기업들,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들을 바벨 전략의 두 번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리스크 관리 및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ETF는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및 추적 대상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에 따른 미체결 등 현실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닐 가능성 있습니다. 따라서, ETF의 수익률과 원화환산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 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격과의 괴리 발생 위험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로 인해 ETF의 순자산가치에 비해 거래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ETF 거래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은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IGER ETF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문가와 상담하거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펀드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작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본문 중 특정 역외 ETF 들은 해당 테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투자추천과는 무관합니다